『혼불』 속 매안마을의 다층적 공간 표상

정 도 미*

〈차 례〉

Ⅰ. 들어가며
Ⅱ. 장소 표지를 통한 공간 기획
Ⅲ. 장소 구획에 따른 공간 구도
Ⅳ. 장소 정체성의 전이와 공간의 범주 확장
Ⅴ. 나오며

Ⅰ. 들어가며

본고는 최명희의 『혼불』[1]을 텍스트로 삼아 소설에서의 공간이 원경으로 제시되는 것 이상으로 서사의 핵심적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을 논하고자 한다. 『혼불』은 한일합방 이전인 1930년대 후반부터 그 이후인 1940년대의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는 전권 10권 분량의 방대한 양의 작품이다. 작품은 청암부인을 중심으로 하는 남원지역 문중인 매안 이씨 가문을 비롯해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멍굴, 고리배미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축을 이룬다. 『혼불』이 10권에 해당하는 대서사인만큼 작품에서 다루는 공간 역시 매안에만 한정되지 않고 대실과 전주, 만주 봉천,

*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

1) 최명희, 『혼불』, 한길사, 1996. 이하 본문 인용 시 인용문 뒤에 '권수, 쪽수'만 표기.

넓게는 일본의 동경으로까지 확장되어 나간다. 그러나 다수 인물들의 이야기가 전개되며 『혼불』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공간을 꼽으라면 단연 매안을 들 수 있다. 매안은 단순히 배경이나 장소의 의미를 뛰어넘어 『혼불』이라는 작품 전체의 의미를 다채롭게 구현해 나가는 서사의 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

매안은 『혼불』에 나타난 그 어떤 공간보다도 인물의 삶과 가깝게 밀착되어 있다. 인물이 공간과 관계 맺는 양상은 매안을 다양한 성격을 지닌 공간으로 사유할 수 있게 하는데, 이는 곧 『혼불』에서 매안에 주목해야 하는 까닭이기도 하다. 핵심은 매안이 위치·지리상으로는 단일하게 규정된 장소의 맥락에서 이해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인물의 삶의 의미를 통해 다층적이고도 확장적인 공간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지점에 있다. 즉 장소가 아닌 공간의 맥락에서 이해할 때, 매안은 각기 다른 층위에서 다양한 서사가 구현되며 이러한 서사가 겹겹이 층을 이루어 『혼불』이라는 대서사를 이끌어가는 근간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의 형상화는 인물이 한 장소에서 그곳이 지닌 장소의 정체성이나 장소 표지를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장소는 단순히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인간의 삶의 영역에 깊이 천착되어 있기 때문이다.[3)] 『혼불』 속 매안 역시 마찬가지이다. 매안은 장소와 공간의 경계에 위치하고, 장소에서 공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기획되어 서사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는 곳이라 볼 수 있다.

---

2) 매안이 지닌 공간의 성격을 추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매안이 장소 개념을 넘어서 공간의 범주에 속하는 자질과 성격을 지니고 있는 논항임을 검증하여야 한다. 이 장에서는 이와 같은 논의를 하기 위해 에드워드 렐프,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옮김,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및 오토 프리 드리히 볼노, 이기숙 옮김, 『인간과 공간』, 에코리브르, 2011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참조한다.

3) 렐프, 위의 책, 39쪽 참조.

본고에서는 렐프와 볼노의 논의를 중점에 두고, 이를 통해 읽어낼 수 있는 장소와 공간의 관계에 주목하여 매안이 지닌 서사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밝히고자 한다. 이에 각 장에서는 인물의 장소감과 장소 표지를 통해 구현되는 개인적 공간으로서의 매안에서부터, 장소의 구획 및 통합이 이루어지며 화합과 갈등이 교차되어 나타나는 공동체적 공간으로서의 매안, 마지막으로 장소 정체성의 전이와 공간의 범주 확장을 통해 사회적·시대적 맥락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매안까지를 확인해 보도록 할 것이다.

이렇듯 장소의 개념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공간의 범주에 속하게 되는 매안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동일한 듯 보이지만 각기 다른 층위의 매안이 존재함을 확인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매안에서 일어나는 주요 서사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겹겹의 그물망을 형성하고 『혼불』 서사의 단초가 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매안으로 대표되는 『혼불』속 공간이 단순히 작품 내에서 배경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서사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 원리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Ⅱ. 장소 표지를 통한 공간 기획

공간으로 형상화된 매안은 서사의 추이를 어떠한 관점으로 읽어가느냐에 따라 여러 방향으로 나아갈 잠재성을 지닌다.[4] 그중 이 장에서 우선적으로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서사는 청암부인이 매안에 자리매김 해 가는 일련의 과정에 있다. 청암부인은 복잡하게 얽힌 『혼불』의 서사에

4) 공간은 인간의 삶의 양상에 따라 주관적이고 상대적으로 그 범위를 규정하고 폭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 볼노, 앞의 책, 32~54쪽 참조.

서 중심에 있는 인물이며 매안은 그녀의 삶과 더불어 흥망성쇠를 이룬다. 따라서 청암부인의 삶에 따라 매안은 그녀의 개인적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이것이 점차 확장되어 다층적 의미망을 축적해 나간다고 볼 수 있다.

청암부인은 혼례를 올리자마자 남편을 여의고 홀로 매안에 입성하여 몰락한 이씨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된 인물이다. 청암부인이 매안에 자리매김을 이루는 양상은 그녀가 매안에 시집 온 직후부터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긴 시간동안 지속된다. 이미 가세가 기울어져 삭막할대로 삭막한 매안에 도착한 후 그녀는 "내 홀로 내 뼈를 일으키리라."(3권, 129쪽)고 스스로 다짐하며 이후 매안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는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공간 기획 및 구성의 문제는 장소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의 의미는 직접 경험하게 되는 실존적, 지각적 장소에서 나온다."[5] 고 볼 수 있다. 『혼불』에서 청암부인이 매안을 개인적 공간으로 성립시키는 과정 역시 구체적 장소 표지로서의 매안을 획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청암부인은 매안에 온 직후부터 문중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해 땅을 넓혀 나간다. 이때 땅의 획득은 단순히 물리적 지평의 확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청암부인이 매안에 육체적·정신적으로 체화될 수 있도록 하며, 그녀의 자리매김을 가능하게 만드는 실체적 장소 표지로 기능한다. 땅을 사는 행위는 그곳에 자신의 기반을 마련하고 거주로부터 시작되는 삶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듯 청암부인이 땅을 획득하고 자기 것으로 인식하는 과정을 겪음으로써 매안은 곧 그녀의 정착이 이루어지며 삶이 결부된 개인적 공간의 의미를 갖게 된다.

---

5) 렐프, 앞의 책, 73쪽.

"나는…… 자네와는 정반대였는지도 모르지…… 자네는, 잘라내고 없어지려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했지만, 나는 뿌리를 내리려고 살아온 사람일세…… 무서운 집념으로, 더 질기게…… 더 깊이…… 자네는, 자네를 비우려고 베틀에 앉았지만…… 나는…… 나를 채우려고 땅을 샀네." (3권, 99쪽)

"정경이 기막힌 중에도…… 어쩌든지 심신을 수습해야 허겄길래…… 함속에 든 예단을 팔아…… 돈으로 바꾸었네. 형형색색 곱기도 한 비단들이, 내 한평생에 소용도 없었거니와…… 입던 옷이라도 팔어서 한 뙈기 논이라도 사야 할 형편 아니었던가. 허나, 그것이 한이 될 줄이야…… 다른 것은 다 몰라도…… 그 양반이 나한테 준 단 한가지 정표였던 것을 뒤늦게야 깨달았지마는, 이미 논으로 바뀐 다음에, 깨달으면 무얼허겠나…… 저 논이 그 비단이려니, 저 논에 그 양반 넋이 어려 있거니, 그렇게 생각하려 해도 부질없는 일. 그 허전함을 메우려고 논을 사고 또 사도, 아무것으로도 그 빈자리는 메꿀 수가 없었네. 대신할 수가 없었어. 한평생." (3권, 102쪽)

청암부인이 땅을 통해 매안에 자리매김 해가는 양상은 작품의 곳곳에서 보여진다. 위의 인용문은 청암부인과 인월댁 사이에 오가는 대화의 일부분으로 그녀가 땅의 소유에 집념하는 이유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인월댁은 시집온 직후 남편에게 소박을 맞고 베틀에 의지하여 평생을 살아가는 인물이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거두려다 실패한 인월댁을 마주한 청암부인은 그녀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상황에 놓여있던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감춰왔던 속마음을 드러낸다. 소멸하였으면 하는 마음을 가졌던 인월댁과는 반대로 청암부인은 문중의 종부로서 끝까지 매안에 뿌리를 내려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 했기에 죽음 대신 땅을 택하여 스스로를 다잡았던 것이다.

덧붙여 남편이 준 하나뿐인 정표를 팔아 땅을 산 것에 대한 한스러움은 청암부인으로 하여금 허전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땅을 사도록 하였고, 이것이 결국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매안에 붙들어 놓고 자

리매김하는 방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청암부인이 땅의 소유에 얽매이는 이유가 제시됨으로써 매안의 곳곳은 단순히 그녀에게 주어진 환경이 아닌 애착의 장소가 된다. 즉 청암부인과 매안 사이에 일종의 '토포필리아'[6]가 형성됨에 따라 매안은 그녀가 지니는 장소감을 바탕으로 청암부인 개인의 공간이 되는 것이다.

> "되렌님, 저그 뵈능 게 다아 할머님 땅인디요, 저걸 할머님 혼잣손으로 이루셌지요. 그렇께 되렌님은 넘의 땅 하나 안 밟고 쩌어 산 밑이까지 가실 수 있지라우."
>
> 맨 처음 늦바우 고개에 강모를 내려놓고 소피를 시킨 다음 안서방이 한 말은 그것이었다.
>
> 강모는 속으로 놀랐다.
>
> 저 바다 같은 들판이 모두 할머니 것이라니……. 가물가물한 산 밑에까지도. 그것은 얼마나 광활하고도 아득한 넓이였는지. (1권, 57쪽)

청암부인이 땅을 통해 자리매김 해온 결과는 그녀와 오랜 세월을 함께 한 안서방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녀는 매안 곳곳에 땅의 장소 표지를 확보함으로써 몰락했던 이씨 가문을 일으켜 세우고 자신의 세력과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었다. 청암부인은 위치·지리정보에 불과한 장소 표지였던 매안에 자신의 삶을 개입시킴으로써 매안을 삶의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기획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이와 같은 양상은 또 다른 장소 표지인 청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청호가 기획되는 과정 역시 그녀의 자리매김 양상과 맞물려 있다.

---

6) '토포필리아'는 사람과 장소 또는 배경의 사이에 존재하는 정서적 유대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장소에 대해 갖게 되는 지각, 태도, 가치, 세계관 등을 통해 형성되어진다. 이러한 개념은 이-푸 투안, 이옥진 옮김, 『토포필리아』, 에코리브르, 2011, 17~21쪽의 내용을 참조한다.

해마다 물이 부족한 매안에서 농사지을 물을 넉넉히 마련하고 살림을 늘려가기 위해 만든 것이 청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호 또한 땅의 표지와 마찬가지로 매안에서 그녀의 영역을 확장시켜가는 장소 표지로 기능한다.

청호는 청암부인의 택호를 본떠 만든 저수지로, 물리적·실체적 장소임과 동시에 그녀의 의식이 오롯이 담겨있는 상징적 표지이기도 하다. 마을의 물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선대의 조상 누구도 저수지를 축조하려 하지 않았었다. 저수지의 축조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대규모의 공사이기 때문이다. 청암부인은 아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아무도 시도하지 못했던 저수지의 축조를 기획한다. 이 순간 아들인 이기채 역시 청암부인을 두고 차마 아녀자라고 하지 못하며,(1권, 155쪽) "여기서 청암부인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영험한 존재로 각인된다."[7] 청암부인이 보여준 행보는 남성들에게조차 유례없는 일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능력과 추진력에 경의를 표하게 된다. 따라서 청호는 여성의 한계를 뛰어넘어 스스로의 권위를 증명하며 그녀의 위용을 드러낸 의식적 공간이 된다.

> 아침부터 시작한 일이 하루 꼬박 걸려 어둑어둑해지면서야 겨우 끝났는데,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낸 바위는 영락없는 조개의 꼴이었다.
>
> 엄청나게 커다란 조갑지를 엎어 놓은 것과 너무나도 여실하였다.
>
> 그 형국은 동쪽편으로 머리를 둘러 둥두렷이 불쑥 솟아오른 곳이, 높이가 거의 일고여덟 자 남짓이나 되고, 거기서부터 갈라 퍼져 부드럽게 내리깔은 가장자리로는 대여섯 치 높이로 둘러나가 있는데, 보면 볼수록 엎어 놓은 조갑지 형상이었다.
>
> …(중략)…

7) 이윤영, 「『혼불론』– 인물유형과 갈등구조 연구」, 『한국언어문학』 44집, 한국언어문학회, 2000, 452쪽.

"세상에…… 천산같은 흙더미에 짓눌려서 숨도 못 쉬고 죽어가던 신령님을 구해내셨구만…… 어쩌면……."

"누가 아니라는가요? 그러니까 꿈에 미리 현몽을 하셨든가? 그렇게 기어이 일을 시작허시드니."

"이제 두고 보게 가운(家運)이 창성할 것이네."

"정말로 청암아짐 뵐 적에마다 예사 어른이 아니다, 아니다, 싶드니마는. 이런 제세 인물도 다 타고나는 것이지요이?"

"그렇고말고. 참말이지 이번에 큰일을 두 가지나 한꺼번에 허신 것 아니요? 저수지 쌓아서 치수하고, 신령님 구해드리고."

"엄청난 조개바우지. 그 큰 조개가 흙에 묻혀 물을 못 먹었으니……."

"이제는 양껏 잡수시고 맑은 물에 부디 편히 지내소서."

문중의 부인들은 그 조개바위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심정을 빌었다. 어느덧 거멍굴이나, 건넛마을 둔터, 구름다리, 배암골 그리고 고리배미 쪽에서는 그 바위의 영검에 대해서까지도 소문이 나고 있었다. (1권, 163~164쪽)

위의 인용문은 청호에서 주민들에 의해 신령으로 모셔지는 조개바위가 발견되는 대목이다. 흙더미에 파묻혀있던 조개바위가 청호축조로 인해 물과 맞닿게 됨으로써 마을 사람들은 매안의 앞날이 창성하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모두 청암부인의 영험함으로부터 비롯된 바, 매안 내에서 그녀의 위상은 더욱 더 높아진다. 즉 청호는 문중과 더불어 마을에까지 뻗쳐있는 그녀의 권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지가 된다.

매안에서 그녀의 자리매김은 땅을 통해 시작하였고 청호를 통해 끝마쳐졌다. 청호의 완성은 시집온 직후부터 계속되어 온 그녀의 자리매김이 드디어 완성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호에 대한 그녀의 애착과 유대관계는 당연한 것이다. 이는 청호가 단순히 물리적 환경이나 장소가 아닌 그녀의 정신과 삶이 담긴 공간으로 변모하였음을 의미한다.

"공간은 그 자체로 이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숲(아직 공간이 아닌

것)에서 벌목하는 식으로 인간의 행위를 통해 얻어지는 것"[8]이라는 볼노의 말은 인간의 의도에 따라 얼마든지 공간이 기획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혼불』에서는 청암부인이 그러했다. 빈손으로 매안에 온 그녀는 가문을 다시 일으키고 자리매김을 이루고 말겠다는 일념 하나로 매안의 곳곳에 장소 표지를 마련해 나갔다. 그리고 이는 결국 매안을 그녀 자신의 삶이 깃든 공간으로 기획해 낼 수 있도록 하였다.

Ⅲ. 장소 구획에 따른 공간 구도

매안은 청암부인의 자리매김이 이루어지는 개인적 공간임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씨 가문의 집성촌으로 청암부인, 율촌댁, 효원으로 이어지는 3대의 인물들이 기거하는 공동의 공간이기도 하다. 춘복이, 옹구네, 공배네 등 거멍굴의 인물들과 그 외 민촌의 사람들 역시 매안을 근거지로 삼아 왕래하며 매안을 공동의 공간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자의든 타의든 그들은 마을의 지주격인 이씨 가문의 사람들과 교류하여야만 삶을 지탱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혼불』에서는 청암부인을 비롯한 이씨 가문의 사람들과 거멍굴로 대표되는 하층 민중의 사람들이 매안을 공동의 공간으로 삼아 때로는 협력과 화합을 도모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관계에 얽힌 갈등을 빚어내기도 한다.

이때 장소의 통합과 구획의 문제는 이들 집단간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공동체적 공간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본고의 서두에서는 인물이 느끼는 장소감과 공간 기획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즉 거멍굴을 매안의 범주에 포함시켜 동일한 장소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인물이 느끼는 장소감은 달라지며, 이는 결국 매안의 공동체적

8) 볼노, 앞의 책, 40쪽.

성격을 규명하는 관건이 된다. “공동체와 장소 사이의 관계는 사실 매우 밀접해서 공동체가 장소의 정체성을, 장소가 공동체의 정체성을 강화”[9] 시킬수도 있기 때문이다.

매안과 거멍굴을 하나의 마을 단위로 이해하고 동일한 성격의 장소로 범주화 할 경우, 인물들 역시 매안 내의 구성원으로 존재하게 되며 동일한 장소감과 목표의식을 가지고 공동체간의 화합을 이루어낸다. 그러나 지리적 경계와 사회의 규율에 따라 매안과 거멍굴을 엄연히 다른 장소로 이해하게 될 경우, 인물들은 서로 다른 정체성을 지닌 집단으로 양분화되며 매안에 대해 갖게 되는 인식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들은 매안을 공동의 생활공간으로 여기면서도 하나의 공동체로 맺어지지 못하고 갈등을 겪게 된다.

이렇듯 매안과 거멍굴의 경계는『혼불』의 서사에서 중요한 핵심으로 여겨지는데, 이를 결정짓는 인물이 바로 청암부인이다. 청암부인은 매안과 거멍굴에 두루 영향력을 끼치며 이 두 장소를 모두 포섭하는 정신적 지주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암부인이 굳건히 건재하며 위용을 떨치던 시기에는 매안과 거멍굴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화합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그녀의 죽음을 전후로 한 시기에는 두 장소를 통합시켜 줄 인물이 부재하게 되는 바, 공동체는 다시금 해체되고 매안과 거멍굴은 갈등의 관계로 돌아서게 된다. 즉 앞의 장에서 살펴 본 청암부인의 자리매김 양상은 개인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공동체와 그로 인한 공간 구도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청암부인이 매안과 거멍굴을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고 장소의 통합을 이루는 양상은 곳곳의 대목에서 보여진다.

9) 렐프, 앞의 책, 86쪽.

매안의 아랫물 한쪽에 비스듬히 살고 있는 타성바지 아낙이, 그날, 날이 저물도록 밭에서 콩을 따고 있는데, 마침 도선산(都先山)의 잔등이 하나 너머에 있는 작은집 동네 구선동에 안서방네를 데리고 다녀오던 부인의 밭에 엎드린 타성을 불렀다.

"내 오다 보니 그 집에 연기가 안 나던데, 오늘이 너희 조부 제삿날인 것을 알고 있느냐?"

그 말에 깜짝 놀란 아낙은 목덜미가 홍시같이 붉어지며 당황하여

"아이고 마님, 오늘이 메칠잉기요?"

소리조차 차마 하지 못하고, 연신 송구스러운 몸짓으로 두 손만 비비고 있었다. 아낙은 타성들 중에서도 귀가 빠지는 상민이었다.

…(중략)…

그런 아낙을 뒤로 하고 원뜸으로 올라온 그네는, 안서방을 시켜 조기와 과일 몇 가지를 아낙의 집으로 내려 보냈다. (3권, 149쪽)

매안은 개울을 경계로 하여 아래쪽의 민촌 및 거멍굴과 지리적으로 분리된다. 그러나 청암부인이 관여하는 영역은 비단 개울의 위쪽인 이씨 가문의 일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청암부인은 아랫물에 사는 타성바지 상민의 대소사에도 꼼꼼하게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그녀가 장소의 구획에 관계없이 개울의 아랫물까지도 매안의 범주에 편입시켜 관심과 애정을 쏟으며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매안을 청암부인 개인의 공간으로 기획하는데 일조하였던 청호 역시 공동체적 공간의 토대가 되기도 한다.

"그 많은 품을 어디서 다 불러오며 얼마나한 시간이 들어야 하겠습니까? 또 그 비용은 다 어떻게 감당하고?"

…(중략)…

"내가 한 해 실농을 한 셈칠 것이다."

…(중략)…

> “열 섬지기 짓는 사람은 이웃에 배 곯는 자 있으면 거두어 먹어야 하느니라. 백 섬지기 짓는 사람은 고을을 염려하고, 그보다 다른 또 어떤 몫이 있겠지. 우리 집은, 집이라도 그냥 집이 아니라 종가다. 장자로 내려 온 핏줄만 가지고 종가라고 한다면, 그게 무에 그리 대단하겠느냐? 그 핏줄이 지닌 책임이 있는 게야.” (1권, 155~157쪽)

청암부인은 스스로 실농을 결정하면서까지 청호를 축조하고자 했는데, 그 배경은 종가로서 지녀야할 책임감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책임이 닿아야 할 대상을 이씨 가문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매안을 둘러싼 마을 전체로 확장시켜 나간다. 이 역시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거멍굴과 여타 민촌들까지 매안의 범주에 속하는 장소로 인식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청암부인은 자신의 권위를 통해 매안과 거멍굴의 사람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이어주는 매개자 역할을 한다. 그 결과 마을 사람들은 관수공사를 무사히 끝마치고 청호를 완성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청호가 완성된 후, 축제와 흥분에 빠져들었던 이는 청암부인뿐만 아니라 매안을 둘러싼 사람들 전체였다. 청호는 청암부인 혼자의 힘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공동의 노력으로 일구어낸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청호가 이씨 가문은 물론이거니와 마을 전체의 수호신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청호에 치성을 드리러 찾아오곤 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청호를 공동의 것으로 생각하고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청호는 공동체의 노력으로 기획되며 공동체의 삶을 관통하는 장소 표지라는 점에서 매안과 거멍굴, 그 외의 민촌들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상징이 된다. 이렇듯 매안은 공동체와 합일의 성격을 강화하는 상징적인 장소 표지가 존재하게 됨으로써 분리된 장소의 통합을 이루고 “공동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근원적인 공동의 공간”[10]으로 자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매안이 항상 협력과 화합을 도모하며 공생의 공간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매안과 거멍굴 사이에는 지리적·사회적으로 분명한 경계가 존재하며 인물들 또한 이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 매안의 아랫몰로 넘어가는 개울의 나무다리 위에 서서 평순네는 허옇게 언 물을 굽어본다. 이 개울은 별로 크지도 깊지도 않은 도랑물이나 한가지이지만, 평순네에게는 실로 깊고 넓은 강물보다 건너기 어려운 경계선이다. 그것은 거멍굴 사람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였다. 이 물 건너 매안은 늘 두려웠다. 그곳은, 이쪽에서는 감히 넘볼 수 없는 기상의 날이 서 있어서, 고개 한 번 바로 들고 가 본 일이 없었다. 자칫 그 날에 베일까, 스스로 움츠러들곤 하였다. (3권, 132쪽)

거멍굴의 사람들에게 매안은 항시 어렵고 두려운 기운이 서려있는 곳이다. 개울의 위쪽은 자신들이 범할 수 없는 양반의 기상을 내보이며 그들 스스로가 신분의 차이를 인식하고 움츠러들게끔 만든다. 따라서 개울은 단순히 장소의 구획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개울은 공동의 삶을 이루면서도 결국엔 융화될 수 없는 그들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지이다.

그들을 이어주던 청암부인의 부재와 공동체의 상징이던 청호의 쇠락 역시 통합되었던 장소에 균열이 생기고 공동체의 공간이 해체될 것임을 암시한다. “공간의 당초 공동성이 사라지면 개인 공간을 차지하려는 경쟁적이고 치열한 다툼”[11]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때 개인 공간은 개인적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함이다. 거멍굴에는 신분에 따라 결정된 위계질서에 불만을 가진 자들이 다수 존재한다. 청암부인이 건재할 당시, 이들은 부인의 위엄에 의해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합류한

10) 볼노, 앞의 책, 346쪽.
11) 볼노, 위의 책, 346쪽.

다. 그러나 청암부인이 부재하게 된 상황에서는 스스로가 억눌러왔던 욕망을 인식하며 공동체 공간이 아닌 개인 공간을 획득하려는 시도를 한다. 결국 청암부인과 청호에 의해 봉합되었던 두 장소 사이의 균열은 가속화되고 매안은 화합과 협력이 아닌 갈등이 증폭되어 나타나는 공간으로 변모한다. 쇠여울네로부터 비롯된 다음의 사건은 갈등의 공간으로 변해버린 매안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 쇠여울네는 홱 몸을 돌이키더니, 맨발로 내리달아 안채의 대청마루까지 단숨에 올라간다. 창졸간에 온 집안에 공포가 뒤덮인다. 효원은 건너방 문고리를 몸으로 틀어막으며 두 팔을 버린다. 댓돌 위에 서있던 율촌댁이 뒤따라 치솟으며 쇠여울네의 뒤에서 팔을 틀어쥔다. 뒤쫓아 올라온 안서방과 머슴, 호제, 종들이 한꺼번에 쇠여울네를 싸잡는다. 그러나 순식간에 놓치고 만다.
>
> 그네는 쇠스랑으로 대청마루를 찍는다.
>
> …(중략)…
>
> 쇠여울네는 물 건넛마을 쇠여울 [金灘] 에 살고 있는 타성 사람이었다. (3권, 31~33쪽)

이씨 문중과의 토지거래에서 손해를 입고 전전긍긍하던 타성바지 쇠여울네는 마지막 남은 아들을 잃자 그 원인을 매안에서 찾고 이기채를 공격하려 든다. 매안을 중심으로 통합된 공동체가 청암부인의 권위와 신분제 질서에 기대어 이루어진 것임을 감안할 때, 이 사건은 청암부인의 집이자 위계질서의 시작인 이씨 가문의 종가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기존의 상하관계가 깨어지고, 더불어 이를 통해 구축되던 공동체적 공간이 제 기능을 상실했음을 보여준다. 즉 쇠여울네는 매안의 깊숙이 침투함으로써 위계질서로부터 비롯된 공동체의 사슬을 끊어내려는 시도를 한 것이다.

쇠여울네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지만 이는 전조(前兆)에 불과하다. 평상시 매안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아랫물의 사람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매안과 거멍굴을 융화될 수 없는 각기 다른 장소로 분리하고 공동체로서의 공간이 와해되었음을 인식하게 된다. 더군다나 공동체의 수장 역할을 하던 청암부인의 죽음 이후에는 공동체 공간의 통합을 이룰 가능성을 잃고 이전보다 더 큰 파급력을 지닌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표적인 사건은 춘복이를 통해 발생한다. 춘복은 거멍굴의 그 누구보다도 기존의 위계질서에 적대적인 인식을 보이는 인물로, 그는 매안의 강실을 범함으로써 변동천하를 꿈꾼다.

> 시간이 더 기울기 전에 어서 매안의 원뜸 오류골댁 살구나무 아래로 가야만 한다는 조바심이 그의 발걸음을 헛뜨게 하였다.
> …(중략)…
> 그는 앞발이 조바심으로 내딛는 걸음을 뒷발로 지그시 누르며, 빠르되 신중한 걸음으로 물을 건너고, 아랫물을 지나고, 중뜸을 지나고, 원뜸에 이르렀던 것이다. (6권, 60~61쪽)

춘복은 강실을 범함으로써 자신의 천한 신분과 기존의 질서를 끊어내고자 한다. 춘복이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매안을 중심으로 통합된 거멍굴을 분리시키고 공동체적 공간을 해체, 더 나아가 파행시켜야 한다. 봉건적 질서로 정비된 공동체 내에서 상민인 춘복은 감히 양반인 강실을 넘볼 수 조차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암부인이 부재하는 시점에 맞추어 매안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일 수밖에 없다. 그의 입장에서 매안은 거멍굴을 포용하고 통합하는 장소가 아니라 침투하고 유린하여야 할 타인의 장소에 불과하다.

춘복이와 함께 강실을 납치하고자 계획한 옹구네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강실을 통해 신분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춘복은 개

울 위 매안으로 향한다. 반대로 강실을 자신의 밑에 두고 그간 겪었던 설움을 풀어내고자 하는 옹구네는 강실을 개울 밑 거멍굴로 데려간다. 이는 매안과 거멍굴 사이의 경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에서 비롯된 행위이다. 이렇듯 양반인 강실을 끌어내리는 행동은 두 집단을 유지하는 질서를 유린하고 통합된 공동체적 공간을 해체하는 상징적인 행위라 볼 수 있다.

매안은 『혼불』의 핵심적인 서사가 진행되는 공간으로서 다수 인물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화합과 갈등의 반복적 교차를 보여준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장소의 경계를 통해 구획되는 공동체적 공간의 통합과 단절의 양상이 존재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공동체적 공간으로서 매안이 갖는 의미가 앞의 장에서 확인한 청암부인의 개인적 공간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공동체의 화합양상은 물론이거니와 갈등양상 역시 청암부인으로 비롯된 위계질서를 통해 형성된다. 따라서 핵심은 매안이 하나의 장소를 기반에 두면서도 층위를 달리하여 공간의 의미를 달리 설정할 수 있고, 이것들이 한데 얽혀 『혼불』의 대서사를 구축하는 기반이 된다는 것이다.

Ⅳ. 장소 정체성의 전이와 공간의 범주 확장

앞의 두 장에서는 매안을 토대로 하는 인물들의 삶이 서사화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때 매안은 위치·지리적 장소에 입각한 실제공간의 성격을 지녀왔다. 그러나 매안을 통해 당시 조선의 모습이 그려지기 시작하면서 매안은 더 이상 장소 개념과 결부되지 않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 매안 자체가 하나의 표지가 되어 동시대를 반영하는 사회적·시대적 공간으로 변주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의

관건은 지금껏 매안이 지녀 온 장소적 제약의 한계에서 벗어나 장소 정체성의 전이를 통해 새로운 공간의 의미를 형성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매안이 당시 조선 사회의 모습을 집약해서 보여주는 공간으로 재구성되는 지점에 주목해야 한다. 매안은 조선이 지니는 장소 정체성의 획득을 통해 한정된 장소의 영역을 벗어나 조선 전체를 보여주는 공간으로 범주를 확장해 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염두에 두었을 때 새로운 세대인 강태, 강모가 이씨 가문의 관향(貫鄕)에 해당하는 전주에서 유학하였다는 사실은 그저 우연이 아니다. 그곳에서 만난 심진학 선생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근원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하였고, 이는 곧 매안을 삶이 얽매이는 장소가 아닌 역사와 사회적 의미가 발현되는 공간으로 재고 할 여지를 마련해 주었기 때문이다. 훗날 강모는 전주에 처음 방문했던 날을 떠올리며 매안과 전주, 조선 사이의 연관성을 인식하게 되는데, 이는 곧 매안이 "특정 장소로서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그려지지 않고 조선을 대유하는 공간 형상"[12]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

> 그때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차를 타고 외지에 나갔었다.
>
> 그것도 자신의 관향이며, 이씨 조선 오백 년을 낳은 태조 이성계의 아득한 시조 이한(李翰)공으로부터, 몇 백 년 뒤 후손인 이태조의 사대조인 목조(穆祖) 안사(安社)에 다다르기까지, 십팔 대를 두고 면면히 선조 대대로 부성의 이름난 토호로서 전주 인근을 누르며 살아왔던, 임금의 선영 요람지로 들어가는 것이어서, 여나믄 살 어린 소년 마음에도 조상의 땅을 찾아가는 감회가 자못 남달랐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
> "전주는 일찍이 우리 조선의 발상지다, 해서, 예로부터 경향간에 두루 지중히 받드는 곳이니라."
>
> …(중략)…

12) 장일구, 『서사공간과 소설의 역학』, 전남대학교출판부, 2009, 199쪽.

"거기다가 무엇보다 전주는 우리 성씨의 관향이다."
시조께서 나신 땅이란 말이다. (8권, 76~78쪽)

전주는 결국 왕을 낳았다.
왕의 관향이 되었다.
…(중략)…
그러나…… 오백 년 유장하던 그 나라는, 지금 여지없이 짓밟히어 찢기고, 갈갈이 흩어진 조선의 강산은 이제 일본의 더러운 발굽에 능욕을 당하고 있다.
전주는 또 다시 나라를 잃어버린 것이다. (8권, 103~106쪽)

첫 번째 인용문은 매안을 떠난 강모가 전주를 떠올리는 대목이다. 전주는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의 기원이 되는 곳이자 조선의 발상지이다. 이기채가 강조하듯 매안 이씨의 뿌리 역시 전주에서부터 시작한다. 이씨 가문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갔을 때 조선을 건국하는 이들과 맞닿아 있는 사실은 매안이 지리산 노적봉 밑에 위치한 양반가 이상으로 조선을 대표할 수 있다는 당위성을 제시해 준다. 단순히 어느 한 시대를 배경으로 취하기 때문이 아니라 조선의 모습을 축도(縮圖)할 역사적 근거를 찾음으로써 매안은 장소 차원을 넘어서 조선 전체에 상응하는 표상의 차원으로 환원되는 것이다.

두 번째 인용문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전주는 왕의 관향이 되었지만 곧 나라를 잃고 만다. 매안 역시 조선의 맥을 이어받았지만 그 맥은 곧 끊어지게 된다. 따라서 매안을 토대로 전개되는 서사에는 나라를 잃은 조선의 상황과 격변하는 시대의 분위기가 감지되어진다. 즉 매안은 조선이 갖는 장소 정체성의 전이를 통해 그 시대를 대변하는 사회적·시대적 공간으로 범주를 확장하고 당시 조선의 모습을 담아 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혼불』은 서술자의 논평과 인물의 변화양상을 통해 당시 사회의 모습을 재현해낸다. 먼저 작품은 서술자를 통해 창씨개명과 식량공출, 황국신민화 정책 등 역사적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며 이에 대응하는 인물들의 모습을 그려낸다.

> 창씨개명의 법령은 이미 소화(昭和) 13년, 서력(西曆)으로 1939년 11월, 조선 민사령(民事令)이 개정됨으로써 시작되었는데, 이듬해인 올 이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중이다.
>
> 남차랑(南次郞) 총독은 도지사, 군수, 면장, 동장, 그리고 심지어는 말단의 순사들까지도 동원하여 창씨개명을 강행하고 있었다. (1권, 209쪽. 인용자 표기·밑줄)

위의 인용문은 창씨개명에 대한 서술자의 구체적 설명이 이루어지는 대목이다. 인물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각기 다른 반응과 대처를 보인다. 청암부인은 창씨개명을 권고하는 일본 순사를 향해 호통을 치기도 하고, 거멍굴의 사람들은 성씨를 잃고 자신들과 동등한 처지가 된 매안을 향해 조소를 보내기도 한다. 서술자는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러한 일들이 비단 매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언급한다. 이렇듯 사회적 공간으로서 매안이 부각될 때 매안이 지니는 장소적 맥락에 대한 고려는 부재하게 된다. 매안이 장소 개념을 염두에 두고 논하여 지는 것이 아니라 조선을 대표하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 역시 조선을 상징할 당위성을 지닌 매안을 빌려 서사 되었을 뿐, 실은 조선 전체의 상황과도 같다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자신의 위치나 상황 혹은 세대에 따라 변화하는 인물 역시 급변하는 당시 조선의 정세를 보여주는데 일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주로 신문명과 교육의 혜택을 일찍 접한 이씨 문중의 남

성들에 의해 보여지는 경우가 다수이다. 청암부인의 다음 세대인 이기채와 이기표는 동복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종가의 종손이라는 위치가 주는 제약에 따라 서로 다른 삶을 사는 인물들이다. 따라서 이들의 삶에서 보여지는 간극은 각각 기존의 조선 사회가 고수하고 있던 봉건적 사상과 당시 새롭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서구사상을 가리킨다. 자연스레 같은 뿌리를 둔 형제가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 조선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 이기채는 흰 버선발이고, 기표는 엷은 회색양말을 신었다. 기표는 그 차림까지도 양복이다. 하기야 문중에서 맨 먼저 상투를 자른 사람이 기표였고, 그의 저고리가 단추가 여섯 개씩이나 달린 양복으로 바뀌고, 신발이 숭숭 뚫린 구멍에 검정 끈을 이리저리 꿰어 잡아당겨서 묶어 메는 구두로 바뀐 것도 이상할 것 없는 일이었다.
>
> 이제 오히려 기표의 그런 모습은 당당하기까지 하고, 그 나름대로 차림이 몸에 익어, 보는 사람의 눈에도 익숙해져 버린 터였다.
>
> 이기채는 그런 기표와 달리, 아직도 두루마기에 갓을 쓰고 다니지만, 내심 기표를 나무라고 있지는 않았다.
>
> 자신과 기표의 처지가 같지 않기 때문이었다. (1권, 207~208쪽)

서로 다른 이들의 처지는 비단 의복을 비롯한 외양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문중의 종손으로서 이기채는 청암부인의 땅을 물려받게 될 지주이지만 이기표는 스스로 개척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인물이다. 따라서 이기채는 가문을 이어받아 전통적 질서를 고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이기표는 자연스레 명분보다 실리를 추구하며 변화하는 조선사회의 움직임을 읽어 가는데 몰두하게 된다. 양반의 신분을 지녔다 하더라도 전통사회의 질서만으로는 삶을 보장받을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같은 매안 이씨 가문 내에서도 양반들은 서로 분화

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이는 곧 매안의 가문 내에서만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 조선 전체에 상응하는 일로 이어진다.

한편 이씨 가문의 3세대에 해당하는 강호, 강태, 강모는 이전 세대에 비해 더욱 더 적극적이고 진보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기표의 변화가 기존의 전통적 체제를 바탕에 둔 보수적인 변화였다면 이들은 양반으로서 갖는 마지막 틀 마저도 탈피하고 벗어나려는 급진적인 모습을 보인다. 특히 서구사상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강태는 계급과 토지제도의 모순에 비판적인 시각을 지니며 자신이 느낀 부조리함에 정면으로 대응한다. 강태는 강모와의 담화를 통해 프롤레타리아 사상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그의 시각으로 볼 때 청암부인이나 강모를 비롯한 양반가들은 권리와 신분을 보장받고 태어난 대표적인 부르주아 계급이다. 따라서 강태의 날 선 비판은 할머니인 청암부인을 겨냥하게 된다.

> "노동자는 자기 생존을 위해서 일한 노동력 전부에 대하여 원시 사회의 물물교환처럼 올바르게 보상받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몇 시간 몫 어치만을 임금으로 받고 만다. 나머지의 노동 시간은 보상받지 못해. 그러니까 그 나머지 잉여 노동 가치는, 모두 기업가나 자본가, 혹은 지주가 갖게 되는 거지. 노동자는 자기 노동의 극히 일부분만을 값으로 받는 셈인데, 자신의 노동, 거의 대부분의 노동은 고용주가 차지하게 될 잉여 가치를 생산하기 위해서 바치는 것이다. 할머니와 소작인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어."
>
> 강모는 그 말에 고개를 흔들었다.
>
> "큰일 날 말씀입니다."
>
> "아니다. 할머니가 생전에 이루신 엄청난 재산이라는 것이, 뒤집어 말하면 소작인들에게서 가장 많은 이윤을 남기고 그악스레 긁어모았다는 증명밖에 더 되겠어? 도저히 그런 재산은 모을 수가 없는 일이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으냐? 그 양반은 지주로서의 특권과 횡포를 최대한으로 누리신 분이라고 할 수 있지." (3권, 61~62쪽)

강태는 사회적 환경으로써 인간 모두에게 주어진 토지가 사유재산화 되면서 계급이 발생하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더불어 자신이 노동한만큼 대가를 보상받지 못하는 제도에 비판을 가하며, 할머니인 청암부인 역시 지주로서 무산가들을 착취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규정한다. 이는 곧 청암부인이 땅이라는 장소 표지를 통해 일궈낸 그녀의 개인적 공간을 부정하는 것이며, 전통사회에서 유지되어 온 양반 중심의 토지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기존의 조선 사회가 지닌 모순을 꼬집고 있는 것이다. 강태 자신이 기득권층인 양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적 모순을 지적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 보인다. 하지만 강태의 이례적인 행보는 오히려 당시 조선 사회에 이루어진 신교육과 서구사상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파급효과를 지녔는지를 보여준다. 강태에 의해 매안은 양반체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변화의 기로에 서 있는 조선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이는 작품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강호 역시 마찬가지이다.

> “내가 내 힘으로 내 몸 움직여서 근로하고, 그 노동과 근로를 통해서만 내가 먹을 밥과 내가 읽을 책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떳떳한 일인가요. 내가 흘린 땀을 꼭 그만큼의 밥과 책으로 바꾸는 것이야말로 가장 정확한 교환 방법이고, 또 정직한 소득인 거지요.” (7권 257쪽)

강호 역시 강태와 마찬가지로 신교육을 통해 사상의 전환을 이룬 인물이다. 강호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스스로 노동을 하고 소득을 취함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진 신분이나 환경에서 벗어나 스스로 변화하는 사회를 실감하고자 한다. 강호에게 있어 기존의 조선이 유지해 온 체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의 입장에서 이는 타파되어야 할 굴레에 해당한다. 스스로 학비를 벌었다는 강호의 말에 문중의 어른들은 ‘불경

스럽다'(7권, 259쪽)는 반응을 보이지만 강호 스스로는 이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문중의 어른들과 강호의 담화가 이루어지는 대목은 단지 한 가문 내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아니라 전통사회의 질서를 고수하는 기존세대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는 신세대가 교차되는 지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씨 가문의 3세대 중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인물은 강모에 해당한다. 비교적 자유로운 삶을 살아온 강태, 강호와 달리 가문의 질서에 얽매여 살아온 강모의 만주행은 『혼불』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 가장 파격적인 행보이기 때문이다. 종손의 위치에서 가문을 버리고 떠난 그의 행동은 자신의 과오를 회피하고 자유를 찾기 위한 개인적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곧 더 이상 가문이나 질서만이 우선시되지 않으며 조선이 개인의 열망을 추구하는 사회로 진입하였음을 뜻하기도 한다. 따라서 강모의 탈주는 가문을 중심으로 하는 질서가 무너지고 양반 스스로가 이를 깨뜨리려 하는 새로운 사회의 움직임이 포착되는 사건이라 볼 수 있다.

이 장에서 보여지는 사건들은 매안을 중심으로 발생하면서도 기존의 매안이 지니는 위치·지리적 장소 개념과 결부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장소 개념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약을 넘어서 장소 정체성의 전이를 통해 공간의 범주를 확장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때 매안은 역사적 맥락에서 조선을 대표할 수 있는 근거와 당위성을 찾고, 서술자의 논평과 인물의 변화양상을 통해 일제강점기와 격동의 시대를 맞이하던 당시 조선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장소의 차원을 넘어선 공간을 구성하여 매안이 『혼불』의 배경 이상으로 서사를 전개시켜 나가는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 장에서 언급하는 사건들이 앞의 장에서 확인 해 온 매안의 공간적 의미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령 기존의 체제에 의구심을 품고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이는 강태, 강호는 위계질

서를 중심으로 형성된 매안과 거멍굴 사이의 공동체적 공간을 거부하며 반발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기채와 강모의 경우 역시 청암부인을 통해 기획된 그녀의 개인적 공간을 이어받아야 할 인물들로서 책임감을 느끼거나 혹은 탈주의 욕망을 갖고 고뇌에 휩싸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즉 매안이 사회적·시대적 공간으로 변주되는 양상을 보이며 기존에 지녀온 장소 개념과 결부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혼불』내에서 일어나는 서사는 매안이 갖는 다양한 공간의 의미를 토대로 하여 그 맥을 유지하고 겹겹이 층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매안이 『혼불』의 다층적 서사를 엮어가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단순한 배경 이상의 의미를 갖고 서사를 이끌어 나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혼불』의 서사는 매안이 지닌 다층적 공간의 의미망의 축적을 통해 완성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Ⅴ. 나오며

수학적 개념으로 공간을 파악할 경우 단일한 장소나 범위만을 가리키는 한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된다. 하지만 인간의 삶과 결부된 생활터전으로 바라볼 때에는 그 지평을 얼마든지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게 된다.

『혼불』에서 서사의 근간이 되는 매안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 장 전체에서는 이와 같은 사유를 바탕으로 매안이 지닐 수 있는 공간적 의미의 확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때 매안은 장소 표지의 획득을 통한 개인적 공간에서부터 장소 구획에 의한 공동체적 공간, 마지막으로 장소 정체성의 전이를 통한 사회적·시대적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공간으로까지 기능하였다. 따라서 매안은 동일한 범위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다층적 범

위로 확장될 수 있는 공간이라 볼 수 있다.

주목해야할 사실은 『혼불』의 서사가 하나의 사건이 단선적으로 배열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층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다른 층위의 사건에까지 영향을 끼치어 서로 얽히고설키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즉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적 공간의 범주에서 일어난 사건은 공동체적 공간의 범주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공동체적 공간의 범주에서 일어난 사건은 사회적·시대적 공간의 범주에서의 사건으로까지 이어져 나간다. 이는 매안이 단순히 공간적 배경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층층이 겹을 이루게 하여 『혼불』이라는 대서사를 끊이지 않고 이루어지게 근간으로써 작용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바이다.

따라서 『혼불』에서의 매안은 단순히 지시적 의미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작품의 대서사가 가능하게 하는 가능성의 공간으로 보아야함이 마땅하다. 매안을 통해 『혼불』은 각각의 인물들과 연계된 다양한 사건의 추이가 전개되고 이를 엮음으로써 총체적인 서사적 의미망을 갖추게 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최명희, 『혼불』, 한길사, 1996.

2. 단행본

장일구, 『서사공간과 소설의 역학』, 전남대학교출판부, 2009.

_____, 『경계와 이행의 서사공간』, 서강대학교출판부, 2011.

에드워드 렐프,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옮김,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오토 프리드리히 볼노, 이기숙 옮김, 『인간과 공간』, 에코리브르, 2011.

이-푸 투안, 심승희·구동회 옮김, 『공간과 장소』, 대윤, 2007.
_____, 이옥진 옮김, 『토포필리아』, 에코리브르, 2011.

3. 연구논문

이동재, 「『혼불』에 나타난 역사와 역사의식론」, 『한국근대문학연구』 3, 한국근대문학회, 2002.
이윤영, 「『혼불』론 –인물유형과 갈등구조 연구–」, 『한국언어문학』 44, 한국언어문학회, 2000.
이혜경, 「문학적 토포필리아로 찾는 『혼불』의 자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3.
임환모, 「『혼불』의 텍스트성과 서사전략」, 『현대문학이론연구』 20, 현대문학 이론학회, 2003.
장일구, 「『혼불』의 서사 구성의 역학」, 『현대문학이론연구』 12, 현대문학이론학회, 1999.
홍성암, 「〈혼불〉의 서사구조 연구」, 『현대소설연구』 23, 한국현대소설학회, 2004.

이 논문은 2015년 4월 20일에 투고되어 2015년 5월 10일 심사 완료하였으며 2015년 5월 18일에 게재 확정되었음.

<국문초록>

『혼불』 속 매안마을의 다층적 공간 표상

정 도 미

본 논문은 최명희의 『혼불』을 텍스트로 삼아 작품의 공간적 배경으로 존재하는 매안마을의 의미를 분석하고 매안이 다층적 공간의 형상을 지니고 있음을 규명해 나간다. 이를 통해 하나의 장소로부터 각기 다른 공간의 의미가 도출 될 수 있고, 공간의 의미가 작품의 서사를 이끌어가는 핵심적 요소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밝히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볼노와 렐프의 논의를 중점에 두고 매안이 갖는 장소적 정체성이 서사공간으로 형상화되는 양상에 주목한다. 또한 이와 더불어 각기 다른 층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한데 얽혀 『혼불』의 서사를 완성해 나가고 있음을 확인해 나간다.

『혼불』에서 매안이 갖는 공간의 의미는 각각 층위를 달리하여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그 중 첫 번째 공간의 의미는 인물의 자리매김을 통해 기획되는 개인적 공간으로서의 매안이다. 『혼불』의 핵심적 인물인 청암부인은 위치, 지리적 장소였던 매안에 자신의 삶을 투영시킴으로써 매안을 자신의 삶이 깃든 공간으로 기획해 나간다. 청암부인을 통해 매안은 개인의 삶이 이루어지는 개인적 공간의 의미를 갖게 된다.

두 번째 공간의 의미는 매안을 토대로 공동체를 이루는 인물들을 통해 기획된다. 매안은 『혼불』의 서사가 전개되는 주된 장소임에 따라 수많은 인물들의 화합과 갈등양상이 반복되어 나타난다. 이때 장소의 구획과 통합은 매안이 지니는 공동체적 의미를 규명하는데 관건이 되며, 매안은 곧 인물들의 삶이 공존하는 공동체적 공간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세 번째 공간의 의미는 한정된 장소의 의미를 벗어나 당시 조선이 갖던 장소 정체성의 전이를 통해 기획된다. 즉 매안은 역사적 근거를 통해 조선 사회를 대변할 공간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이때 매안은 일제강점기를 비롯해 격동기를 맞이하던 조선을 보여주는 사회적, 시대적 공간으로 변주된다.

본 논문은 이렇듯 공간의 관점을 토대로 하여『혼불』속 매안마을 지니는 의미망을 분석해 나간다. 이때 장소가 지니는 정체성과, 인물이 느끼는 장소감은 매안을 단일한 장소이면서 동시에 다층적 공간으로 분화 할 수 있게 하였다. 그 결과 각기 다른 공간으로 분화된 매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이 한데 얽혀『혼불』의 서사를 이루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최명희, 혼불, 장소, 장소감, 서사공간

<Abstract>

The representation of multiple spaces in the Maean in the *Honbul*

Jeong, Do-mi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meaning of Maean village that exists in the spatial background of work in *Honbul*. And Maean investigate that has the shape of a multi-layered space. These results, I can be the meaning of the different space from one location is derived. Meaning of the space I have to function as a central element. To prove this, in the study, we put discussion of the Bollnow and Relph the emphasis is provided. We pay attention to the surface the location identity that Maean has is shape of a narrative space. Also, events that occur on of the other layers to complete in narrative of *Honbul*.

Meaning of Maean space in the *Honbul* is represented by three forms. The first meaning is a personal space that has been planned through the positioning of the person. Chong-Am is at the heart of the person, the location, to project her life on the geographical location and that was Maean. She will continue to planning in their lives dwelling space Maean. It means so with the meaning of personal space to be carried out of the individual life for Chong-Am.

Meaning of the second space is planned through a person that forms a community based on the Maean. Maean is the main place to narrative of *Honbul* is deployed. So the appearance of a lot of people our unity and conflict to be displayed is repeated. At this time, the integration of the location of the block, to investigate the communal sense that Maean has. It means so with the character

of communal space to life coexistence of person.

The meaning of the third space, beyond the meaning of limited places are organized by the deformation of the identity of the location where the Cho-Sun has. Maean is one that has been expanded in the area speak for Cho-Sun society through historical basis. In this case, Maean shows a Cho-Sun who had reached the age of upheaval, including Japan colonial era, social, is secular spatially Variations.

In this study, to analyze the meaning based on the perspective of space『Hon-bul』Maean. At the same time the location wrapped Maean person feels is a single location, and to be able to differentiate into multi-layered space. As a result, Various events that occur in sheets that have been differentiated into another space is gradually undergone a stake in *Honbul* grand at one point.

key words: Choi Myung-hee, *Honbul*, place, sense of place, narrative space.